

주일 예배 순서

- 강림절 제4주 / 성탄주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요한복음 1:1-4,14,18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122장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57번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펜데믹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와 왕이심을 절실히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깊이 깨닫고 그 거룩한 뜻이 우리 자신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마다 습관적으로 맞는 연례행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자라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신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빌립보서 2:5-11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봉 헌(offering) 111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Hymn) 507장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오늘은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뜻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3. 송용희집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오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별세 하셨습니다. 장례예식은 이번 화요일(21일) 오전 11시에 아래 장소에서 있습니다.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Riczo funeral home : 7462 State Rd. Parma, OH 44134

<기도제목>

- 탈레반 정권 아래서 핍박받고 있는 아프카니스탄의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 미국에 회개와 부흥을 통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 사회 전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 토네이도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임하시도록. 피해복구가 하루 속히 이루어지도록.
-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 김희원권사님의 회복 / 박현숙 성도님의 회복(좌골신경통)
 - 허영희 성도님 시어머님의 회복을 위해

<말씀묵상> 빌립보서 2:5-11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 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 우리 안에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5-8절) 나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으며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2. 자신을 비우고 낮추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9-11절) 나에게도 나 자신을 낮추고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혜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철저히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의 위치, 권리, 능력 등을 포기하고 종의 모습을 취해 한 여인을 통해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겸손이란 말로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예수님의 겸손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포기과 희생 그리고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의 누가 이런 겸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인간의 겸손은 자아의 실현을 위한 인격 수양의 통로라면,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자기 부인과 희생의 통로입니다.

과연 이런 마음(겸손)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요? 사도는 가능성을 말하지 않고 그저 품으라고 강권합니다.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 양식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분의 마음으로 종이 되어 섬기는 일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께서 사셨던 삶이 곧 나의 삶이 될 것입니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